

광주교육청, 전국 최초 'AI 교육원' 2025년 개관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총사업비 378억 원 투입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인공지능(AI)교육원' 설립으로 미래형 광주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AI교육원은 AI 교육을 전담하는 전국 최초 기관이라고 장휘국 교육감은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21일 시 교육청이 옛 자연과학고 부지에 추진하는 'AI 교육원' 설립안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설립을 승인했다.

광주AI교육원은 2022년도 정기 1차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 정기 2차 심사에서는 부대 의견에 대한 보완 내용 보고 후 최종 통과됐다.

AI교육원은 2025년 7월 개관을 목표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포함해 공사비·용역비·부대비용 등 총사업비 378억여 원(유휴부지 활용 용지비 제외)이 투입된다.

부지면적 2만2천172㎡, 건축면적 9천451㎡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다. 1층에 AI 테마관(누리터), 2층 AI 교육관(배움터), 3층 AI 연구관(세움터) 등이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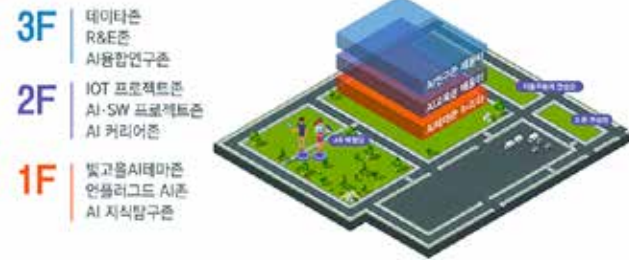
인공지능 이해를 위한 1층 테마관에는 빛고을AI테마존, 언플러그드 AI존, AI지식탐구존이 들어온다.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2층 교육관은 사물인터넷(IoT) 프로젝트 존, AI·SW 프로젝트존, AI커리어존으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3층 연구관은 데이터존, 학생창의연구(R&E)존, AI융합연구존으로 채워진다. 야외에는 증강현실(AR) 체험장과 자율주행차 연습장, 드론 연습장이 마련된다.

AI교육원은 학생들에게 인공지능과 디지털 소양 교육을 하고자 학교급과 진로 성향에 따른 AI 교육을 한다. AI 교육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AI 융합 교육 방안 연구를 실행하는 전담 기관으로서 지역 사회와 연계한 AI 인재 양성 플랫폼 역할도 수행한다. 학교와 협력해 정보·AI 과목,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와 연계하고 지역사회와는 지역 주력산업 연계 프로젝트를, 대학과는 AI 융합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초·중·고등학생 AI 정보 영재 입문·발전·전문 과정, 가족·시민 대상 체험 과정과 캠프, 동아리 운영, 첫걸음·더알기·미래 전문가 맞춤형 과정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AI교육원을 차질 없이 설립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미래형 광주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①



1,2 '광주 인공지능(AI) 교육원' 조감도



1

